

일본의 모노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 60년대 말에서 70년대를 통하여 한국 현대미술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작가로서, 제한적이거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저의 작업 활동, 그리고 이웃나라 한국 현대미술운동에 관해 간단히 소개 해 드림으로서 오늘의 이 모임에 조그만 참고가 될 수 있게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지금 1970년대 현대미술운동을 시작했던 시절로부터 반세기가 되어갑니다. 서구의 모더니즘을 배우고 익히던 시기에, 20세기의 문명은 매우 빠르게 변화 했습니다. 그것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전개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혁신적으로 변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 1964년에 발표된 '벨의 정리(Bell's Theorem), 1988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의 미립자의 이중 슬릿(slit) 실험에 의한 관찰자 효과(observer effect)에 관한 놀라운 실험 등은 지금까지 생각 해 왔던 세계를 새롭게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물리학은 이 우주가 출렁이는 환상의 세계이며 삼라만상이 고유한 물질이 아닌 홀로그램과 같은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원자들은 스스로 어디에든 퍼져 있다가, 의식적 관찰자가 그것을 보기 원하기를 결정하면 나타나며, 관찰자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형태는 외부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체계에 따라 그 정보를 해석해 나타난 그림이고, 이 환영은 마음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에서 온 결과라고 합니다.

자연을 이성적으로 계량하고 연역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세계에 젖어 기계론적인 사고에 익숙한 모더니즘은 온 우주가 엄밀하게 전일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경지에서 사유하는 유기론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명의 대 전환 시기라고 하고,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 참고는 동아시아에서 고대로부터 연구되어 온 여러 사상의 흐름이 유용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0년경의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은 개발도상국의 초기단계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곧바로 1950년 한국동란이란 전쟁이 3년여에 걸쳐서 100만 명 이상의 인명손실과 전국토의 파괴라는 참상을 겪은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한국현대미술의 흐름도 국가변란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초 근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일본의 한국 통치에 의해, 일

본을 통해 한국에 서구 근대미술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서양화란 분야가 생기게 되고, 전통회화는 동양화 혹은 한국화란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없었던 모더니즘의 미술형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서구의 모더니즘미술을 '향토적인 미술'로 일본인의 정서에 적합한 서양화로의 변화를 모색한 흐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양화 도입이후 한국의 근대회화에서도 일본처럼 '한국적인' 정서를 소중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서구의 전통을 따르던 미국에서도 20세기 초에 '미국적'인 미술의 실현을 강렬하게 추구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와는 달리 전후에는 세계현대미술계에 영향력 있는 미술의 형식들을 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주류사회가 서구 모더니즘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쟁, 전쟁..., 그 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 그리고 민주화 운동, 지금도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흥미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난리통 속에서도 '한국적'이란 로맨틱한 구름을 잡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상흔들이 얼룩진 작업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난 중에도 서구 모더니즘의 시선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란이 그친 훨씬 후, 유럽이나 미국의 전후세대들이 펼쳤던 앵포르멜이나 추상표현주의 형식을 60년대에 한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표현형식으로 차용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더니즘의 미술을 잘못 이해했거나, 자신에게 알맞은 미술형식의 새로운 구현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선배 선생님들 화단의 불확실하고도 무기력함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그룹을 결성하여 작품발표의 열정을 보이며 선배작가들과 교류를 한 경험도 가졌고 70년대 미술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역시 젊은 세대에게 한가한 세대의 인물로 비춰지고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근대 초기의 '한국적', '일본적', '미국적'이란 정서에 대해서도 이성적인 사고로서가 아닌 직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의 관점에서는 새롭게 연구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70년 전후로 서울에서는 우리 세대 (1940년 전후 출생)가 중심이 되어 AG(아방가르드 그룹 1969-1971년 평론가 李逸과 吳光洙가 가세함), ST(space and time 1970년 평론가 金福榮이 가세)그룹 등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그룹 활동이 거의 동시에 여럿이 등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74년에 대구 현대미술제, 75년에 서울 현대미술제, 76년에 부산 현대미술제, 광주 현

대미술제, 78년에 전북 현대미술제가 탄생하여, 미술계가 현대미술로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제는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작가들이 각 지방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의 모험을 체험하고, 교류하고,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79년 제5회 대구 현대미술제에는 모노하 경향의 젊은 세대 14인의 일본작가들도 초대해서 대구 시내 9개 전시장에서의 설치작업과 근교 낙동강에서 한국작가들과 함께 각기 퍼포먼스 작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현대미술의 변화에 관해서는 일본어가 가능한 세대에서는 '미술수첩'이나 '예술신조' 등의 미술잡지들을 통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어권 세대에서는 읽지는 못해도 화보를 통해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구가 한국현대미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대구 작가들도 자부심이 강해 일본 작가들을 즐겁게 초대할 수 있었고, 참여작가 모두가 순수한 열정을 발휘한 행사였습니다. 74년 대구 현대 미술제에서 출발한 작가들 사이의 신뢰와 화합의 소통은 그 이후 한국현대미술운동의 확산에 강력한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료 혼다, 노마 히데키, 야수오카 가쥬히코, 이케다 도루, 구마가이 고이치로, 가주노리 기타자와, 에비쥬카 고이치, 현미화, 오키 게이쥬케 탐, 다바다 뎃쥬, 우라에 다에코, 모토오 후지타, 이마사와 메구미, 리디아 오쿠무라)

70년대의 한국 현대미술 운동은 미술의 어떤 특별한 논리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0년대 말부터 현대를 사는 젊은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미술의 형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첨단적인 미술을 이해하고, 폭넓은 미술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집단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들 운동이 성숙한 작가들의 제전이 아니라, 소박하고도, 학구적, 모험적인 실험의 제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미술의 국제적인 교류가 희소했던 시기, 1968년에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한국현대미술전"이 개최되었을 당시 한국의 박서보선생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론가이며 작가인 이우환선생의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교류를 출발로 도쿄 갤러리, 무라마츠 갤러리, 가마쿠라 갤러리 등 여러 갤러리의 도움, 그리고 여러 이론가분들, 작가분들의 도움으로 한국, 일본의 미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구사하는 선배세대의 개인적인 교류를 이어서 70년대 후반에는 영어를 배운 우리 세대도 일본과의 국제적인 경험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생전에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 중국 세 나라의 미술 교류에 오랜 동안 힘 써 주신 도쿄 갤러리의 야마모토 사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73년에 저는 첫 개인전으로 서울의 명동화랑에서 시내, 주막의 낡은 가구들과 집기들을 옮겨 놓고, 일주일 동안 실제로 술(막걸리)을 제공하는 선술집을 실행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4년에는 대구 현대 미술제를 출발 시키고, 다음 해 파리 비엔날에 참여하면서, 당시 비엔날의 운영위원이셨던, 여기 계신 미네무라 도시아키 선생을 뵈 수 있었고, 제 근방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치던 히코사카씨의 작업을 열심히 촬영하시는 안자이 선생의 모습도 뵈 수 있었습니다. 그 몇 해 후엔가, 제가 도쿄를 방문했을 때, 마침 시내 작은 공원의 광장에서 스가 기시오 선생의 퍼포먼스 작업을 참관했는데 그때도 안자이 선생이 곁에서 촬영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에 관한 기록을 소홀히 해 왔던 저에겐 참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 스가 선생, 호리 코사이 선생 등 여러 작가분들은 최근 까지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에서 작업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스가 선생의 작업은 젊은 시절의 단정한 작업도 좋아 했습니다. 근래의 비교적 소규모의 작업들에서 저는 그의 따뜻한 손길의 느낌이 부드럽게 느껴져 잔잔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과 중국을 쉴 틈이 없이 다니시며 교류하시던 치바 시게오 선생은 일본 현대미술의 형성에 관한 자신의 저서를 중국어로 발간하여 중국에 소개하고 계십니다.

70년대 말이 되어 미술운동은 절정기를 지나 그룹이나 미술제가 대부분 해체가 되고 세대가 바뀌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특기할만한 일 중의 하나는 70년대에 대구현대미술제의 현장공간으로 이용했던 낙동강 주변은 그때의 행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공공기관이 재단을 설립하여, 4년 전부터 대구현대미술제를 매년 개최하면서 새로운 세대에 의한 전국적인 행사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에는 한국 미술계는 민중미술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조금 요란했습니다. 70년대 초 '현실과 발언'이란 대학생들의 그룹전이 반독재의 작업으로 제재를 받은 일이 발아가 되고, 유럽의 신표현주의 작업들의 영향과 더불어, 80년 광주사태는 민주화 항쟁운동으로서의 미술이 민중미술이라는 명칭을 갖게 하고, 90년대에 들어서에는 약화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흐름은 일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몇몇 작가들은 독특한 개인적인 형식을 구사해 가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이르러 급증한 외국유학과 다변화한 국제 교류로, 지금은 다양한 형식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래에 시중에는 젊은 미혼 남녀들을 위한 결혼 중개소가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서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적정

하게 비교하여 결혼을 성사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구세대인 저는 사람들 사이에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인상 그것을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첫눈에 반해서 사랑했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들어 왔습니다. 직관과 영감, 이 모두가 아원자와 파동이 실제로 작동함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더욱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만물이, 아원자가 한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윤리체계를 구축 해 가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비유로서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지난 세기를 거쳐 21세기에는 동아시아인에게 친숙한 유기론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많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업들에 잘 반영된다면, 서구의 모더니즘으로부터 현대가 필요로 하는 진보된 방향으로, 인류에게 더욱 유익한 미래로 향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소